

# 儒學의 감정 이해\*

— 退溪의 「心統性情圖」와 『樂記』를 중심으로

안희정\*\*

## 【 차례 】

1. 서론
2. 退溪의 「心統性情圖」에서 감정의 역할
3. 『樂記』의 감정 인식구조
4. 결론

### 【 국문초록 】

인간은 四端의 감정을 통해 보편적 사랑을 알기도 하지만, 七情을 통해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한다. 감정은 이와 같이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과잉된 감정으로 사회적 법칙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해칠 수도 있다. 유학자들은 일찍이 이를 간파하고 파괴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에게 먼저 마음의 수양을 권했다. 감정의 이해를 통해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글은 감정을 덕성 수양적 관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감정 사유를 통해 기

---

\* 이 논문은 중국산둥대학문예미학연구중심과 한국성균관대학교동양철학과BK21PLUS 사업단이 2014년 11월 15일에 개최한 <溫故而知新:儒家思想與當代創意>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질을 자각하며 본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크게 퇴계의 『聖學十圖』 중 六圖인 「心統性情圖」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역할과 『樂記』의 감정 인식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퇴계의 「심통성정도」에서 下圖의 중요점은 본성에 개인의 기질이 섞여 혼잡해지는 마음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중도에서 감정 자체는 본성의 발현된 표현일 뿐 善性이라는 것을 일컫지만, 하도를 통해 인간은 늘 사회에서 욕망과 개인의 기질로 갈등된 구조를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악기』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인식구조이다. 『악기』에서는 일찍이 감정의 조화에 대해 논했다. 감정이 고립되면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며 음률의 조화인 악樂을 말했다. 감정의 조화란 하나의 감정에 항상성이 없으며 삶의 다양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감정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악기』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조화성은 인간의 슬픔, 고통으로 나타나는 불안, 쇠약함, 우울감에서 삶의 깊숙한 즐거움도 함께 보며 본심을 찾아가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서 수양을 뜻한다. 따라서 본심은 기질이나, 타자의 반응에 의해 일어난 고립된 감정에서 자기 자신의 본연지성을 되찾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의 심층적 이해이기도 하다.

#### 주제어

감정, 기분, 퇴계, 심통성정도, 악기

## 1. 서론

감정은 철학, 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성logos의 영역과 더불어 감정pathe<sup>1)</sup>에 대해 인식했

1)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파테pathe’는 우리말의 ‘감정’과 “적용범위와 의미”가

다. 플라톤은 감정을 “본능에 의거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으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에 대해 자유를 사랑할 수 있는 느낌이자, 본성적 노예에서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작용으로 설명한다.<sup>2)</sup>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믿음doxai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정이 행위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감정이 거짓된 믿음에 기초하여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건전한 정서는 좋음과 나쁨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버리기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여겼다. 이러한 감정과 건전한 정서의 차이는 삶의 앞에 있다고 인식했다.<sup>3)</sup>

고대 동양사상에서도 감정<sup>4)</sup>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상윳파 니까야Samyutta Nikaya』에서는 초기불교의 인간관을 五蘊으로 설명한다. 그중 감정은 受蘊에 해당되는데 苦受, 樂受, 不苦不樂受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현 상태가 모두 해체되었을 때 느낌 또한 하나의 느끼는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기능에 집착하는 것, 탐욕과 적의의 잠재성향에 대한 우려를 말한 것이다.<sup>5)</sup> 장자는 감정의 이해를 자연 순환의 구조로 바라본다. 나로 바라

---

다를 수도 있다. ‘pathe’는 ‘무언가를 겪는다’ 또는 ‘받다’인 ‘파스케인paschein’에서 유래되었다. 특히 “누군가에게 일어난 모든 우연적인 변화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우연적인 변화에는 ‘상태’도 포함되기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마음이 대상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인 감정으로도 ‘pathe’를 사용했다. (‘pathe’와 감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참고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규철 외, 『고대 그리스철학의 감정 이해』, 동과서, 2010, 6~9쪽.

2) 『고대 그리스철학의 감정 이해』, 9~12쪽.

3) 『고대 그리스철학의 감정 이해』, 63~94쪽.

4) 각주 1)에서 밝힌 것처럼 고대 불교의 受와 고대 유교에서의 情도 현대어 ‘감정’과 개념적으로 다를 수도 있으나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느낌 발생이라는 의미에서 ‘감정’으로 해석한다.

5) 각목 스님, 『초기 불교의 이해』, 초기불전연구원, 2010, 114~118쪽.

본다면 타자의 죽음을 접할 때 인간은 슬픔을 느끼지만 자연의 이치를 따져서 그 감정을 이해해보자면 생이 자연 순환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감정을 마음의 운동이라는 것에 근본을 두고 감정과 본성의 관계에 대해 논쟁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대립적 관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지각 능력이나 마음의 작용으로 추구하면서도 감정에 대해 비판적으로나 긍정적으로 사유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리학자들은 본성이 발현된 것을 감정으로 보며 도덕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감정이 지니고 있는 파괴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그 파괴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에게 먼저 마음의 수양을 권한다. 감정의 이해<sup>6)</sup>를 통해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왕도 정치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退溪는 宣祖에게 우환으로서 修身을 일삼을 것을 말하며 『聖學十圖』를 올린다. 그는 태극의 운동성에 의한 오행의 원리와 인간 관계적 질서 및 심성정의 이해를 닦음으로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성학십도』의 서문에서 퇴계가 덕성 수양의 필요성을 말한 부분이다.

하물며 통치자의 마음은 모든 기미가 말미암는 곳이며, 모든 책임이 이르는 곳이며, 욕망이 서로 공격해오고 온갖 간사함이 뚫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마음에 한번이라도 소홀하여 방종함이 이어지면,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바다의 물살이 거칠게 흔들리는 것 같으니 이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

6) 이 글에서는 감정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하이데거의 '이해Verstehen'를 사용한다. 하이데거는 '이해'를 대상의 근원적인 존재성으로 해석한다. 또한 본질적인 고유성 그 자체를 파악해보는 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습니까? 옛날에 덕성이 있는 왕들은 이것을 우려하여 늘 두려워하고 조심히 하며 삼가기를 매일 같이 해도 오히려 미흡하게 여겼습니다.<sup>7)</sup>

그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정치에 대한 능력뿐 아니라 자신이 앉은 자리의 대한 책임과 스스로의 다스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집권력만큼 유혹과 욕망이 많아지는 것을 알린 것이다. 통치자가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이 사적 욕망인가, 민생의 안정에 있는가에 따라 우선시되는 행정의 업무가 달라진다. 오늘날 정치인의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욕망이 모이는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인 것이다.

만약 정치인이 권력을 민생이 아닌 사적 욕망에 쓸 때, 그 영향은 고스란히 민생에 반영된다.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 자리이기에 마음의 작은 부분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퇴계의 경고는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참여권을 가진 시민의 의무에도 적용된다.

과거에는 도덕 수양이 통치자와 정치가에게만 요구되었다면, 현대에는 정치적 자유권과 평등권이 시민에게 부여되었기에 우환의식에 따른 도덕 자각의 대상자가 만민으로 넓어지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고위계층의 의무감이라는 핑계로 특권의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보편적 관심을 가지며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종사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7) 『退溪全書』(一), 卷7, 「進聖學十圖箚」: 況人主一心 萬幾所由百責所萃 衆欲互攻 羣邪迭鑽 一有怠忽而放縱繼之 則如山之崩 如海之蕩 誰得而禦之 古之聖帝明王 有憂於此 是以兢兢業業 小心畏慎 日復一日 猶以爲未也

책임을 느끼고 우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자기 수양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안병주는 퇴계의 『성학십도』가 분명히 ‘성왕의 學’을 말하지만, “유교의 德治主義의 전통에 근거하여 학문·덕성으로서 정치의 大本을 삼고 있는 점에서 성인의 학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성인의 학을 갖추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학문의 목적과 방법이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聖門의 학에 있어서 도덕적 수양”의 뜻을 세울 것을 말하며 “퇴계가 敬을 지키는 것이 思와 學을 겸하는 방도라고 한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유학에서는 사회 참여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성정의 이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유학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유학의 전체적인 사상을 모두 다룰 수 없기에 감정의 성질 및 인식구조와 관계 반응적 측면에서 퇴계의 「心統性情圖」와 『樂記』<sup>9)</sup>의 「樂本」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8) 안병주, 「유교의 우환의식과 退溪의 「敬」: 「聖學十圖」서를 중심으로」, 『退溪학보』, 退溪학연구원, 1973, 46~51쪽.

9) 『樂記』는 『禮記』에 속해 있는 글로서 11편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사람의 마음이 외부 대상과 관계하여 聲이라는 소리가 생겨나고 이로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성립 과정과 음악이 인간의 마음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음악의 다양성에 대해 논하며 정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하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의 심성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마음과 음악의 영향 관계를 다룬 『樂記』는 유학 사상에서도 중요한 이론서가 된다. 특히 ‘樂’의 개념은 성음의 조합에 의해 완성된 음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화로서 樂, 즉 인간의 마음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심리적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樂記』는 정치적 교화로서 작용하기도 했지만 현대에서는 수양론적 측면에서 예술교육론으로 인용되기도 한다. 『樂記』는 여러 유학자들에게도 관심을 받았는데 鄭玄과 孔穎達, 王夫之 등의 각주가 있으며 한국 유학에서도 악에 대한 논의가 權近, 丁若鏞 등에 의해 기록되었다.

## 2. 退溪의 「心統性情圖」에서 감정의 역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四德인 仁義禮智로 말한다. 이러한 점은 인간이 외부 대상과 자연적 조화를 추구하는 내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인간이 부여받은 본성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또한 이익관계에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타자에게 향하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덕이 사회의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면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맹자는 본성을 지정된 법률이 아니라, 양심의 자각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한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은 마음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대한 지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인 四端이 본성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했다.

주희는 도덕적 본성이 감정을 통해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을 ‘性發爲情’으로 말한다. 본성은 미발의 상태에서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침이 없는 中에서 성의 열개인 체단이 갖추어지고, 감정의 지각을 통해 그 본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心性情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 마음의 지각 활동은 ‘어느 순간에도 중단 없이 작용’하는데 다만 고요한 상태는 중으로 심의 체단을 만들며 寂然不動한 것이며, 움직이는 상태는 마음이 작용하며 感而遂通한 것이다. 고요한 상태가 마음에서 아직 사려가 씨앗으로 있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상태는 사려라는 씨앗이 있을 띄운 단계이다. 그는 심성정의 관계를 ‘心統性情’으로 구성한다. 마음이

본성을 포괄하여 그 내용을 감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재한다는 것이다.<sup>10)</sup>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도덕 발견이 가능한 것은 발생하는 감정을 인간이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자와 주희의 사상을 통해 인간은 감정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감정은 조화로운 관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본성을 발현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주희의 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학문적 체계를 만들어나간다. 그의 성정론은 『성학십도』의 「심통성정도」를 통해 완성된다. 그는 「심통성정도」 上圖에서 ‘심통성정’의 구조를 그린 程復心の 그림을 인용하고, 中圖와 下圖에서는 고봉과의 사칠논변<sup>11)</sup> 이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그린다. 상도에서 인간은 오행의 기

10) 안영상, 「사단칠정론 이해를 위한 주희 심통성정론의 검토」, 『정신문화연구』32-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292~295쪽.

11) 四七論辨은 퇴계와 고봉의 서간 형식으로 진행된 논쟁을 뜻한다. 퇴계는 四七各有所從來를 말하며 四端을 理之發로 七情을 氣之發로 보았다. 그는 이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눈다. 고봉은 四七出於一性으로 사단과 칠정은 같은 정이기에 하나의 기질지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그는 정이 사단과 칠정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은 中節과 不中節의 차이로 파악하였다.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189~244쪽. 이러한 논변은 퇴계가 기대승의 「후설」과 「충론」의 내용을 받아들이며 各有所從來에 미흡한 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2서에서 언급한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고 최종해석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퇴계의 사칠론은 所指와 所從來의 渾淪과 分開라는 점에서 볼 때 모순점이 발견되며 문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의 주리설은 가치론적 지점에서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논점이다. 윤사순, 『퇴계 이항의 철학』, 예문서원, 2013, 149~156쪽. 한편 이러한 사칠논변의 혼륜과 분개의 논의는 주자의 同體異用과 同行異情에 대한 퇴계의 재해석이며 독창적인 언어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정환, 「사칠논변에서의 渾淪과 分開」, 『退溪학보』133호, 退溪학연구원, 2013, 39~78쪽. 이러한 감정의 구조를 통해서 사단이 왜 도덕적 행위로 직결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과제와 순선한 리의 온전함으로 향한 수양론적 문제를 상기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장은 이러한 퇴계와 고봉의 사칠논변을 문제시하기보다는 사칠논변

운을 받아 본성의 이치를 갖추게 되었고 발현된 감정으로 다시 본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구조를 담고 있다면, 중도에서는 사단칠정의 지나침 없는 순전한 성격만 밝히며, 하도에서는 사칠호발설을 제시한다.

바로 이 ‘사칠호발’에서 감정의 이해는 확장된다. 감정이 단지 본성을 발현하는 기능일 뿐이라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 아래 모든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악의를 내포하지 않으며 충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인의예지’라는 관계적 조화성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본성을 지녔음에도 인간들은 충돌한다. 인간의 감정에는 리로 발하는 사단이 기의 판단 이전에 온전히 드러나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로 발하는 칠정에 리의 사유가 들어가야 한다는 감정의 이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본성은 사단의 감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 온 관계에 집중하여야 하며 칠정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감정은 기질적·환경적 기준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질 이해는 하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하도의 중요점은 본성에 개인의 기질이 섞여 혼잡해지는 마음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담아낸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중도에서 감정 자체가 본성의 표현일 뿐 순수한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일컫지만, 하도를 통해 인간은 늘 사회에서 욕망과 개인의 기질로 갈등된 구조를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계는 기질의 혼재에 대해 張橫渠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도입한

---

에 근거한 퇴계의 「심통성정도」의 중·하도를 통해 감정의 특성들을 알아보는 데 있다. 또한 「심통성정도」에서 나타난 感而遂通의 과정을 『악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구성이다.

다. 장횡거는 본연지성을 물로, 기질지성을 얼음으로 비유했다. 즉 본연지성은 본성 그대로 발현되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기질지성은 개인에 의해 본성이 굳어버린 감정응고 상태이다. 또 다른 비유로 주희는 이를 물과 소금으로 말한다. 물은 본연지성이며 소금은 기질이다. 따라서 소금물은 기질지성이기에 주희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별개의 성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기질지성은 소금물로서 섞이지만 소금과 물이 다른 것처럼 기질은 기질일 뿐 성은 본성 그대로이다.<sup>12)</sup> 따라서 마음이 성정을 통섭하는 것은 인식적인 측면에서 먼저 외부 대상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자신의 개별적 기질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감정 이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본성이 발현하여 리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질에 의해 고착되어 집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또한 「심통성정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虛靈知覺’이라는 인식적 기능이 본성을 감정으로 발현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심적 기능이라는 것이다. 감정은 허령지각으로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 자체로는 감정에게 아무런 악의가 없다. 그러므로 퇴계는 중도를 통해서 기가 섞이지 않은 본성이 본연지성으로 발현된 사단과 칠정의 선한 편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이 이렇게 본성만 잘 표현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는 삶의 전쟁과 기질의 집착, 자아 세계의 좁음 속에서 익히 알고 있었다. 다음은 퇴계가 하도를 설명하며 감정에 대해 염려한 점이다.

예를 들면 사단의 정은 리가 발하여 기가 따르기에, 본래 순선하여 악이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역주와 해설 聖學十圖』, 예문서원, 2009, 233-235쪽.

없으나 오로지 리의 발현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기에 가리어져 불 선하게 흐른 것이다.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타는 것이기에 역시 불선하지 않으나 만약 기가 발할 때 중하지 않고 리가 멀하면 놓치게 되어 악이 되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퇴계의 염려는 사단과 칠정의 특성을 보여준다. 사단의 온전함은 리의 가득함이지만 칠정의 온전함은 가득 차지 않고 리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물론 칠정의 나머지를 채우는 건 관계의 이치와 기질의 지각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악의 개념이 생성된다. 그것은 개인의 기질 자체에 대해 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은 제각기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온화하거나 난폭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질들이 각각의 생활에서 조화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악이 형성되는 건 바로 자신이 가진 기질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그대로 끌려 다닐 때이다.

이와 같이 「심통성정도」에 나타나는 마음의 구조를 통해 감정이 본성을 발현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타자와 타자간의 관계를 성립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정을 느낀 후 자신이나 타자의 기질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사유하여 이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자신을 잃는 파괴성을 지닌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인식구조를 『樂記』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감정과 기분의 연

13) 『退溪全書』(一), 卷7, 「心統性情圖」: 如四端之情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관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3. 『樂記』의 감정 인식구조

퇴계의 「심통성정도」 하도에는 기질 고착으로 인해 본성을 잊어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마음의 상태가 그려져 있다. 퇴계는 그에 염려하여 理氣의 互發說을 제시한다. 그는 기로 발한 칠정이 리를 통해서 본래적 역할을 수행한 뒤 다시 寂然不動함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설명한다. 그것은 감정 자체가 리 없이 치달린다면 이미 자기나 타자는 마음에 없고, 감정 그 자체에만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여, 기분과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악기』<sup>14)</sup>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악기』에서는 일찍이 감정의 조화에 대해 논했다. 고립된 감정이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퇴계 또한 감정이

14) 퇴계는 ‘樂’에 대해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편지에서 樂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문인 鄭士誠과 李德弘의 “리는 예이니 ‘담담함은 예가 발현한 것’이요, 화창함은 정이니 ‘화락함은 감정이 행하는 것’이다”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라는 물음에 “‘담박함은 리의 발현이다’라고 주석하는 것은 옳지만 이제 ‘담박함은 예의 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의 화락함은 인정의 화창함과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화락함은 감정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금장태는 “樂의 화락함에 대해서 감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화창함이 하는 것이라 확인하고 있는 것도,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 가운데 순조롭게 펼쳐져 나온 화창함에 의해 ‘樂’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금장태, 『한국유학의 악론』, 예문서원, 2008, 63~93쪽.

기질의 집착으로만 향할 때 리가 멸할 수 있는 것을 경고했다. 그의 도덕성이란 오히려 발생하는 감정의 사유를 통해서 감정의 운동성을 알 때 자각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 조화란 하나의 감정에 항상성이 없으며<sup>15)</sup> 삶의 다양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감정의 변화를 깨닫는 이해이기 때문이다. 퇴계는 이러한 감정에 매몰되어 리가 멸하는 것을 조심하며 敬으로 一心主宰할 것을 말한다. 『악기』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조화성은 인간의 슬픔, 고통으로 나타나는 불안, 쇠약함, 우울감에서 삶의 깊숙한 즐거움도 함께 보며 본심을 찾아가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로서 예술 교육론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심은 기질이나, 타자의 반응에 의해 일어난 고립된 감정에서 자기 자신의 본연지성을 되찾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의 심층적 이해이기도 하다.

감정을 느낀 마음은 聲으로 드러나고 聲은 孔穎達에 의하면 心術로 해석된다.<sup>16)</sup> 그는 심술을 마음의 길 또는 마음이 향하는 바로 지칭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심술을 감정을 통해 마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태인 기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sup>17)</sup> 『악기』에서는 聲이 息을 만들며 조화된 음

15) 『악기집석1』, 김승룡 편역주, 청계, 2002, 407쪽, 「樂言」: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16) 『악기집석1』, 413쪽, 『禮記正義』: 然後心術形焉者 術 謂所由道路也 形 見也 以其感物所動故 然後心之所由道路而形見焉

17) 기분이 자기 이해를 밝히는 현상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늘 어떤 기분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기분을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본래적 존재자로서는 현 자신의 존재성을 밝히기 때문이며 또는 비본래적 존재자로서는 기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래적 존재자로서 기분을 통해 자기의 존재적 상태를 파악하는 면에서는 자기 발견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만약 자신이 비본래적 존재자로서 느끼는 기분은 그들로서의 기분으로 존재성의 닫힘 현상이 될 수 있다.

물로 樂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sup>18)</sup> 그리고 聲音樂의 발생 이해와 樂의 조화성을 통해 인간의 덕성 수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樂의 근본인 聲은 인간의 마음이 움직여서 발생한 것이기에, 마음의 작용인 감정은 반대로 樂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인간의 감정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다.

앞장에서 본성과 감정의 관계를 통한 주체 내면의 구조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감정을 발생시키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적 입장을 두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악기』에서는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외부 대상으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다.<sup>19)</sup>

고대 사상인 『악기』에서는 心에 대해 언급하며 그 움직임에 대해 말한다. 즉 마음은 직간접적이든 만남을 통해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人心之動은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물론 ‘심통성정’에 대한 논의는 感於而動에 대한 전제를 두고, 感한 뒤 일어나는 마음의 본질과 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感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대해 공영달은 사람의 감정에 외부대상의 상태가 반영된다고 말한다.

18) 『악기집석1』, 75쪽, 「樂本」: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19) 『악기집석1』, 75쪽, 「樂本」: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만일 외부 대상이 고통스럽다면 마음은 슬프다...만일 외부 대상이 선하다면 마음은 반드시 기쁘고 즐겁다...만일 외부 대상과 마음이 맞으면 마음은 반드시 기뻐한다...성냄은 갑자기 나쁜 일을 만나 마음이 분노한 것이다... 만일 존귀하고 숭고한 외부 대상을 만나면 마음은 엄숙하고 공경해진다...만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되면 마음에는 몰랐던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난다.<sup>20)</sup>

공영달은 타자의 상태에 따른 주체의 감정 변화에 먼저 주목하였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감정도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내적 감정은 기분에 반영되어 드러난다. 타자가 고통스럽다면 주체는 슬퍼지며 마음이 슬픈 감정에 매여 있다면 기분은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며 쉽게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타자에 의해서만 감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타자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소 불쾌하다고 생각하던 타자의 무심한 행동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신분적, 인종적, 사상적 차이로 인해 그와 내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부정적 감정으로 타자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로에 대한 오해와 차이, 갈등적 관계로 인해 타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분노나 슬픔을 느낀다. 이는 감정의 발생이 타자의 상태에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20) 『악기집석1』, 90~92쪽, 『禮記正義』: 若外境痛苦 則其心哀...若外境所善 心必歡樂...若外境會合其心 心必喜悅...怒謂忽遇惡事而心志怒...若外境見其尊高中嚴敬...若外境親屬死亡 心起愛情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신이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근심하라.<sup>21)</sup>

감정을 인식하여 사유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점은 감정 발생을 타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서운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성을 알아봐주고 있는가라는 역질문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서운함은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결국 근심의 대상이 나에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다가갔을 때 화해의 지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감정을 통한 자기 인식의 구조를 살펴본다. 감정이 발생하면 그 감정은 기분으로 드러난다.

슬픈 마음을 느낄 때 聲은 불안하고 쇠약해지며, 즐거운 마음을 느낄 때 聲은 기쁘고 느긋해지며, 기쁜 마음을 느낄 때 聲은 피어나고 퍼뜨려지며, 분노한 마음을 느낄 때 聲은 거칠며 사납고, 경한 마음을 느낄 때 聲은 울곧고 반듯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聲은 화합하고 부드럽다.<sup>22)</sup>

여기에서 감정과 기분에 대한 차이는 마음의 내재적 운동인가, 표면적 상태인가로 볼 수 있다. 감정은 본성을 발현하거나 타자에게 느끼는

21) 『論語』, 「學而」: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22) 『악기집석1』, 88쪽, 「樂本」: 其哀心感者 其聲嚙以殺 其樂心感者 其聲擘以緩 其喜心感者 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 其聲粗以厲 其敬心感者 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 其聲和以柔

기질적 나의 반응이다. 감정의 지각을 통해 마음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그것은 기분으로 나타난다. 즉 고요했던 마음이 흔들리므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지만, 본성의 자연적 방향이거나, 자신이 생각하던 방향과 일치하느냐, 어긋나느냐에 따른 기대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과 기분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볼 지점은 기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자신이 본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거나 이해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 수도 있으며,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돌처럼 굳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기분은 의식의 범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된다. 다만, 자신이 왜 우울하거나 불안한지, 왜 느긋하거나 평안한지 모를 뿐이다.

『악기』에서는 이에 대해 기분을 통해 도리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감정과 기분은 연관 관계에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전달받는다. 따라서 나의 기분을 통해 지각하지 못했던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으며, 감정의 발생을 통해 나의 기분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대저 사람은 혈기와 심지의 본성은 있어도 서럽고 즐겁고 기쁘고 성냄에 항상됨이 없어서 느낌에 응해 외물에 일으켜져 움직인 뒤에 심술이 나타난다. 섬세하고 미묘하고 불안하며 쇠약해지는 음이 지어지면, 사람은 그림고 근심스러워진다. 기쁘고 화합하며 느려지고 뻑뻑한 음이 간략한 음으로 지어지면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워한다.<sup>23)</sup>

23) 『악기집석1』, 407쪽, 「樂言」: 夫民有血氣心知之性 而無哀樂喜怒之常 應感起物而動 然後心術形焉 是故志微嘒殺之音作 而民思憂 擘諧慢易繁文簡節之音作 而民康樂

공영달은 기분과 감정의 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든다.

樂의 善惡은 처음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뒤에 樂을 이루고, 樂이 다시 아래로 사람에게 느껴지니, 선한 樂이 느껴지면 사람은 선하게 변화하고, 나쁜 樂<sup>24)</sup>이 느껴지면 사람도 그에 따라 나빠진다. 즉 樂은 사람에서 나왔다가 다시 사람에게 느낌을 주는 것으로 돌아오니, 마치 비가 산에서 나왔다가 다시 산에 비를 내리고, 불이 나무에서 나왔다가 다시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sup>25)</sup>

나아가 이러한 감정과 기분의 연관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감정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정은 기분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며, 기분은 감정을 통해 발생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향을 받는다는 구조가 성립된다. 즉,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감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열어두는 것이다.

#### 4. 결 론

이 글은 유학 사상에서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역할과 인식 구

---

24) ‘樂’이 조화라는 뜻으로 『樂記』에서 나타나지만, 각각의 완성된 음악으로서 ‘樂’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즐거운 악과, 나쁜 악이 지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공영달은 여기에서 각각의 정서를 나타내는 음악으로서 樂을 의미한 듯하다.

25) 『악기집석1』, 411~413쪽, 『禮記正義』: 樂之善惡 初則從民心而興 後乃合成爲樂. 樂又下感於人 善樂感人 則人化之爲善 惡樂感人 則人隨之爲惡 是樂出於人 而還感人 猶如雨出於山而還雨山 火出於木而還燔木

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종합해볼 수 있다.

1. 감정은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느낌으로 자각하게 하기에 자율적 도덕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기질 지각을 통한 감정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2. 감정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타자로 인한 반응과 타자를 이해하고 있는 반응이다.
3. 감정을 내부적 운동성으로, 기분을 표면적 상태로 이해하는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기분으로 감정 지각이 가능하며 감정으로 기분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덕성 수양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시작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안병주는 퇴계가 고대의 우환의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본다. 퇴계는 敬을 주로 삼은 『성학십도』를 선조가 우환의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길 바랐다. 퇴계가 통치자에게 권한 敬이란 세상의 우환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民에게 덕성이 닿기 위해 수양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현대 시민의 자세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인간은 사단의 감정을 통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사랑을 찾기도 하지만, 칠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한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 함께 하는 기쁨, 불평등함의 분노, 생명 위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건강한 감정을 순환하며 삶을 이해한다. 이 글은 감정의 파괴성에 대해 염려하며 감정의 역할과 인식구조를 모색하였지만, 나아가 근본적인 목표는 감정의 올바른 이해를

찾는 데 있다.

또한 기질 지각은 행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데에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병폐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했을 때, 기질 지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기질에 의한 자기합리화로 넘어가는 일이다. 즉 타자에게는 귀책을 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기질 인정으로 면책을 너무나도 쉽게 주기에 다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sup>26)</sup> 악이 악으로 지속되는 건 옳음에 대한 모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한 면책으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는 데에 있다. 善性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이러한 지점일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해에는 악을 행했을 때, 원칙에서 어긋났다는 판단이 생기고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데에 있다. 즉, 거기에는 반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질병을 겪으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음식의 중요성과 약효, 수술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몸의 질병에서 외부 상처는 그대로 드러나지만 내장 기관은 악화되기 전까지 이상 증상이 미약하다. 마음의 질병도 내장 기관처럼 증후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한 건강검진은 더욱 일상에서 필요하다. 그것은 퇴계가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의 덕성수양처럼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닦아나가는 연습일 것이다. 수신은 힘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퇴계 또한 짐작한 바 있었다.

처음에는 오히려 (기질이) 간섭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말과 행

---

26) 신정근, 「책임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79호, 철학문화연구소, 2008, 110~118쪽.

동이 서로 맞지 않은 것에 근심이 있으며, 때로는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고생스럽고 불쾌한 병을 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이른 바 장차 크게 나아갈 기미이며 또한 좋은 소식의 단서가 되는 것이니, 결코 이로 인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말고 더욱 마땅히 자신을 믿고 다하여 힘쓸 것이다.<sup>27)</sup>

이 구절을 통해 기미는 자신이 즉각적으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있다는 발견에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연구는 감정의 특성이나 구조를 통해서 사실 그 현상을 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감정의 이해는 감정을 발생시키거나 부재하게 만든 삶의 상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정 이해는 기질 자각과 발생에 대한 인식 구조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 놓인 인간이 후천적 환경으로 어떤 상처가 있으며, 사람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즉 본성이 그대로 발현될 수 없는 그 어그러짐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다.

## 참고문헌

『論語』, 『孟子』, 『退溪全書』

『악기집석1』, 김승룡 편역주, 청계, 2002.

각목 스님, 『초기 불교의 이해』, 초기불전연구원, 2010.

27) 『退溪全書』(一), 卷7, 「進聖學十圖筭」: 其初猶未免或有掣肘矛盾之患 亦時有極辛苦不快活之病 此乃古人所謂將大進之幾 亦爲好消息之端 切毋因此而自沮 尤當自信而益勵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역주와 해설 聖學十圖』, 예문서원, 2009.
- 금장태, 『한국유학의 악론』, 예문서원, 2008, 63~93쪽.
- 박규철 외, 『고대 그리스철학의 감정 이해』, 동과서, 2010.
- 신정근, 「책임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79호, 철학문화연구소, 2008, 110~118쪽.
- 안영상, 「사단칠정론 이해를 위한 주희 심통성정론의 검토」, 『정신문화연구』32-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281~308쪽.
- 안병주, 「유교의 우환의식과 退溪의 「敬」: 「聖學十圖」서를 중심으로」, 『退溪학보』, 退溪학연구원, 1973, 43~55쪽.
- 이상은, 『退溪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 이정환, 「사칠논변에서의 渾淪과 分開」, 『退溪학보』133호, 退溪學연구원, 2013, 39~78쪽.
- 윤사순, 『퇴계 이황의 철학』, 예문서원, 2013.

Abstract

### A Study on Confucian Understanding about Emotion

- Centering on Toegye's "Simtongseongjeongdo"(Diagram of the Heart-Mind Connecting Nature and Emotion) and "Akgi"

An, Hui-jeong

Human beings come to understand universal love through the Four Fonts of virtue (benevolence, righteousness, politeness and wisdom), but they can also realize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and freedom through the Seven Emotions (happiness, anger, sorrow, fear, love, evil and desire). Emotions can be the workings of the human mind that elicits moral acts, but excessive emotions can result in violation of social rules hurting oneself. Noticing it earlier, Confucian scholars advised rulers who were capable of exercising the greatest destructive power to cultivate their mind. They thought that one could control his or herself by understanding emotions.

The study aims to discuss emo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cultivating moral character. It is focused on realizing disposition and coming to one's senses through meditation on emotion. It also examined the roles of emotions mentioned in Simtongseongjeongdo (Diagram of the Heart-Mind Connecting Nature and Emotion), the sixth diagram of Toegye's Seonghaksipdo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as well as a structure of emotional recognition.

First of all, the importance of Hado in Toegye's Simtongseongjeongdo realistically portrays a structure of mind where confusion is generated as personal temperament is mixed with human nature. It is due to the fact that Jungdo views emotion itself as expression of human nature that is good nature but that it is proved through Hado that human beings always live in a conflicting structure that involves desire and personal temperament in the society.

Second, a structure of emotional recognition mentioning in Akgi is examined. Akgi elaborated on emotional harmony. It recognized that isolated emotions can hurt human mind mentioning Ak, the melodic harmony. Emotional harmony means that feelings change when emotions do not have constancy and there exist diversified sentiment in life. Emotional harmony mentioned in Akgi means cultivating characters in terms of understanding about diversity where human nature is sought through a great pleasure in life in connection to anxiety, weakness and depression that are expressed as grief and pain. Accordingly, human nature is to restore one's originality in isolated feelings generated by disposition or others' response.

Key Word

Emotion, feelings, Toegye, Simtongseongjeongdo and Akgi

▪ 논문투고일 : 2014.12.31    심사완료일 : 2015.2.13    게재결정일 : 2015.2.14